

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진행 과정

최근 범행수법(예시)

1단계 택배기사 사칭

신용카드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택배기사라고 하며 "신용카드가 발급되어 배송중이다"고 전화 옴

- 피해자가 "카드 발급한 적 없다. 모르는 내용이다" 라는 등 대응하면
- 택배기사는 "보이스피싱을 당한 거 같다, 카드 사고예방팀으로 전화를 해봐야 할 거 같다" 라며 **카드사 번호를 알려줌**

2단계 카드 사고예방팀 사칭

알려준 카드 사고예방팀에 전화를 하면, "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다, 사고 신고를 위해서는 보내드린 문자를 확인하고 **링크(URL주소)**를 눌러야 상담이 가능하다"며 문자를 보냄

*** 이 때 링크(URL주소)를 클릭하면 핸드폰에 악성앱이 설치됨**

- 카드사에서는 "아무래도 금융범죄에 연루된 거 같다, 금융감독원 번호를 알려줄테니 전화를 해봐라" 며 **금융감독원(1332 등) 번호를 알려줌**

*** 이 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 통화가 넘어감**



3단계 금융감독원 사칭

알려준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면 "지금 조사해보니까 사기사건으로 수사중이다, 00검찰청 000검사가 담당이니 전화를 해봐라" 며 **검찰청(1301 등) 번호를 알려줌**

4단계 검찰청사칭

알려준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면 "지금 조사해보니까 사기사건으로 수사중이다, 00검찰청 000검사가 담당이니 전화를 해봐라" 며 **검찰청(1301 등) 번호를 알려줌**

- "검찰청으로 한 번 출석 해야한다, 변호사를 선임해라" 는 등 수사절차 얘기를 하고,
- 금융범죄니까 금융감독원과 얘기를 하고, 잘 협조하면 선처해주겠다"면서 **다시 금융감독원으로 전화를 하라고 함**

5단계 금융감독원 재사칭

금융감독원에서는 "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잘 협조 해야한다" 면서 금융자산검수, 예금보호 등 명목으로 알려주는 **계좌(법인 또는 개인 명의 계좌)로 이체하거나 현금, 수표** 등으로 준비하라고 함

6단계 현금수거책 등장

"돈을 우리에게 맡기면 출처를 확인하고 범죄 관련 내용은 전부 원상 복구 해주겠다" 며 알려준 **현장요원(수사관 등)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게 함**

*** 이 때 현장요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돈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입니다.**